

[제2018-25호]

 <p>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p>	<h1>보도자료</h1>	<p>사람이 있는 문화</p>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8. 4. 19(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홍보
연락처	323-936-3012/hannah@kccla.org	담당자 Hannah Cho

2018 K-POP Cover Dance Festival



- ▶ 행 사명 : 2018 K-POP Cover Dance Festival
- ▶ 일 시 : 2018.4.21(토) 3PM
 - 3 PM – 3:30PM : The Chorus Game
 - 3:30 PM – 5:30 PM : 2018 K-POP Cover Dance Festival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공연장
- ▶ 주 죄 : LA한국문화원, 서울신문사
- ▶ 내 용 : 2018년 K-POP Cover Dance Festival을 통해 한류 팬들이 K-POP으로 교류하고
자신들의 끼와 실력을 겨루며 미 현지 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 * 특전 : LA예선전 최종 우승자는 한국 최종 결선 무대 참가 및 K-POP 스타와의 만남 등
한국문화 체험 기회 제공
- ▶ 문 의 : 323-936-3012 K-POP담당 Hannah Cho/ hannah@kccla.or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4월 21일 오후 3시 LA한국문화원에서 ‘2018 K-POP Cover Dance Festival’의 미국 현지 본선 행사를 개최한다.

LA한국문화원과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서울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올케이팝, 메가존이 후원하는 이번 ‘2018 K-POP Cover Dance Festival’은 팝음악의 본고장 미국에서 K-POP 커버댄스 동호인들과 팬들의 의미있는 쌍방향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무대의 가치가 더욱 빛날 예정이다.

K-POP Cover Dance Festival 공식 홈페이지(<http://coverdance.seoul.co.kr>)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총 213개 팀의 동영상이 접수됐으며, 이중 온라인 심사를 거쳐 15개의 커버댄스 팀이 이번 미주 본선 무대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LA인근 동호인들만이 아니라 플로리다 주의 텠파와 마이애미 지역에서 3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미네소타주에서 2개 팀이 선발되어 21일 LA에서 각 지역에서 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최종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해를 거듭할수록 K-POP 팬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도 뉴욕, 미시간, 조지아 등 미주 각 주에서 신청하였으며, K-POP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경연에 앞서 경연자 및 관객 모두 함께 K-POP 을 즐길 수 있는 ‘The Chorus Game’을 30 분간 진행할 예정이다. 최신 유행하고 있는 수십여개의 K-POP 댄스곡들이 나올 때마다 자유롭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또한 미 현지에서 활동중인 PK 씨가 Main MC 를 담당한다. 2017년 K-POP Cover Dance Festival 행사에서 우승하여 한국에 다녀온 ‘The First Byte’ 팀의 축하 무대의 시간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 현지의 K-POP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류 문화를 따라하며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POP Cover Dance Festival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8년째 개최되는 온·오프라인 한류 융합콘텐츠로, 세계 각국의 팬들과 지속적인 한류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K-POP 팬케어 캠페인으로써, 전 세계 K팝 팬들이 매년 치열한 온라인 예선과 현지 본선을 거쳐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결선에 초대되고 있다. 전세계 각국 본선의 우승자들은 오는 6월 23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8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최종 결선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가득 체험하며 살아있는 한류를 몸소 즐길 수 있는 꿈의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끝/